

황서정

황서정은 Chelsea College of Arts에서 Interior and Spatial Design 석사를 마치고, 현재 방송 세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이벤트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오며, 순간적으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이 담긴 핸드크래프트 작업을 좋아하며, 동시에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실험적인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오래 남는 감정과 인연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공간과 오브제를 통해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나무



버려진 의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나의 소원 나무'가 되었습니다.

실을 한 올 한 올 묶으며 매듭을 지을 때마다 생각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은 사라지고, 어떤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은 저에게 기도이자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매듭 하나 하나는 사람과 사람, 나와 세상, 나와 부처님, 그리고 나의 소망을 이어주는 인연의 끈을 의미합니다.

서낭나무가 사람들의 소망을 품고 마을을 지켜주듯, 이 의자도 저의 작은 소원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임을 다한 의자는 수많은 매듭과 정성을 만나 소망을 품는 나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도 잠시 마음을 돌아보고 작은 소원을 떠올리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